

박주봉 중소기업부즈만 ‘광폭 행보’ 25개區서 ‘그물망간담회’ 애로사항 듣고 규제 발굴

지난달 강북 시작으로 이달 마무리
소상공인·벤처 기업인 등과 소통
박주봉 “애로사항 해소 보람”

기업인 출신인 박주봉 중소기업 부즈만이 규제 발굴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진행하고 있는 마라톤 간담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의 모든 자치구를 6주간 누비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겪는 애로와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나간다는 의지를 밝히고, 하나씩 실천해나가고 있는 것.

지난 2월 말 취임한 박 부즈만은 메디슨을 창업한 초대 부즈만인 이민화 현 KAIST 교수에 이어 기업인으로서 두 번째다. 2·3대 부즈만은 김문겸 현 송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이 역임한 바 있다.

중소기업 부즈만은 불합리한 기업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독립 기관이며, 중소기업 부즈만은 차관급이다. 소속은 국무총리실이지만 활동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부즈만 지원단을 설치해 돕고 있다.

11일 중소기업 부즈만지원단에 따르면 박 부즈만은 지난달 17일 강북을 시작으로 지난 10일 송파까지 서울시 1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를 마쳤다.

강북에서 출발한 박 부즈만의 발걸음은 도봉→용산→영등포→성동→광진→금천→구로→성북→동대문→중구를 거쳐 현재 송파까지 이어졌다. 이날도 강동구에서 간담회를 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 일정 때문에 다소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즈만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 28일까지 서울시 모든 자치구와의 만남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부즈만은 “중앙정부의 부즈만이 기초단체를 만나러 갔더니 처음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부즈만(왼쪽)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열린 ‘기업 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에 앞서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의아해하더라(웃음)”면서 “현장을 갈 때마다 깨알같이 많은 애로들이 발굴되고 해소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부즈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결하고 규제 해소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중에서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이 필요한 것들은 관련 부처와 협의·소통을 통해 꾸준히 체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같은 소통 자리가 이미 규제가 풀렸거나 제도가 개선됐는데 현장에서 아직 모르고 있는 내용 등에 대한 홍보 효과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즈만이 간담회를 통해 만나는 업종도 다양하다. 특히 각 구별로 지역에 특화된 대표 업종의 목소리 청취에 집중하고 있다.

수제화 공장이 밀집한 성동구의 경우 수제화소공인, 문래 소공인 집적지구가 있는 영등포구에선 금속소공인, 경동시장과 약령시장 등이 있는 동대문구에선 시장 상인 등을 만나 소통을 하는 식이다.

박 부즈만은 “일단 서울시 25개구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경기도내 자치구 몇 곳, 그리고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 간담회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더 부드럽고 더 선명한 ‘게이밍모니터’

삼성전자 신제품 ‘CRG5 27형’ 공개

삼성전자가 2배 가까이 부드러운 게이밍 모니터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PC 게이밍 쇼’에 신제품 ‘CRG5 27형’ (사진)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 하반기 출시를 예정했다.

PC 게이밍쇼는 게임 전문가 ‘PC 게이머’가 주최한 글로벌 행사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CRG5 27형은 27인치에 240헤르츠(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제품이다. 1초당 240장의 화면을 보여준다는 얘기다. 종전 게이밍 모니터는 144Hz에서 165Hz 수준으로만 지원했다. 정밀한 조작성을 필요로 하는 FPS나 레이싱 게임에서 필요성이 높다.

엔비디아 G-Sync(지싱크)도 지원한다. 호환되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와 함께 사용하면 화면 끊김과 잘리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1500R 곡률 커브드 스크린은 게임 몰입감도 높여준다. 240Hz 주사율에 1500R 곡률 스크린을 통합해 ‘래피드 커브’라 불리는 기술이다.

게임을 특화한 다양한 모드도 있다. 장르에 맞게 명암과 화면 밝기를 설정해주는 ‘게임 모드’, 중심점을 따로 만들어주는 ‘가상 표적’, 청색광을 줄여주는 ‘아이세이버’ 등이다. /김재용 기자 juk@

야놀자·배달의민족, ‘한·핀 스타트업 서밋’ 멘토로 활약

스타트업 강국서 韓 역량 뽐내

한·핀 대학생 해커톤에선
아이디어 발굴 등 멘토링

스페클립스, 포럼서 성장 소개
韓스타트업-핀 기업간 만남도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세계 스타트업의 성지’ 핀란드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한껏 자랑했다. ‘한·핀 스타트업 서밋’에서 한국 유니콘 기업 대표들은 한·핀 대학생 해커톤 멘토로 나섰다. 혁신성장포럼과 스타트업 쇼케이스 등을 통해 AI·자율주행 모빌리티·바이오·헬스 등 혁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제품을 전시하는 등 한국 스타트업의 힘을 뽐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방문 기간 중 ‘2019 한·핀 스타트업 서밋’을 핀란드와 공동 개최했다. ‘개방형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미래를 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서밋은 한국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핀란드 알토스ES 등 민간이 주최하고, 스타트업과 VC(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대기업, 창업지원 기관 등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가 300여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열렸다.

◆김봉진·이수진 대표 ‘해커톤’ 멘토로 ‘친환경 미래도시’를 주제로 열린 한·핀 대학생 해커톤에는 한국을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변성현 스펙클립스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하는 유니콘 기업이 멘토로 나서 참가자들을 돕는다. 배달의민족을 만든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대표와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는 팀별로 1시간씩 총 2회에 걸쳐 아이디어 발굴, 아이템 고도화, 사업계획 작성 등 팁을 전수한다.

김봉진 대표와 이수진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다. 국내 음식 배달 업체 1위인 ‘배달의민족’을 내놓은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말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기업이 됐다. 숙박업체 정보제공 및 예약 플랫폼 야놀자도 최근 유니콘 대열에 합류했다.

핀란드 로봇 업체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도 멘토로 참여했다. 박은찬씨는 2014년 삼성전자 재직 당시 해커톤 참가를 계기로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후 핀란드로 이주해 로봇 스타트업 GIM Ltd.에서 엔지니어가 됐다.

◆스페클립스, 혁신성장 사례로

혁신성장포럼에서는 레이저 분광 기술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피부암 조기 진단 솔루션 기업 스펙클립스가 한국 창업 생태계에서의 성장 스토리를 발표했다.

변성현 스펙클립스 대표는 핀란드 노키아가 발표한 ‘대기업의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한 개방형 혁신 사례’에 이어 한국 스타트업의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스펙클립스 조직 훼손 없이 피부암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헬스케어 미디어 메드테크 아웃룩이 선정한 ‘2018 피부과 솔루션’ 분야 TOP10 기업에 선정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한국 스타트업 35개 쇼케이스

한국 스타트업과 핀란드 글로벌 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시장진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스타트업 혁신제품 전시장 쇼케이스도 마련됐다.

/배한민 기자 ericbae1683@metroseoul.co.kr

전기요금 月 2520원에 설거지로부터 ‘해방’

구기자의 뜬구뜨구

① 삼성전자 식기세척기

표준코스 97분 사용해도 84원 불과
손설거지 比 물 사용량 6분의 1 수준

최근 식기세척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걸 부쩍 느낀다. 이미 사용 중인 사람들은 가사노동이 줄었다며 대부분 만족도가 높다.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10여년 전 처음 식기세척기를 접했을 당시에는 소음도 컸을뿐더러 세척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된 모습도 기대됐다.

지난 열흘간 삼성전자 식기세척기 프리스탠딩 모델(모델명: DW50R4055FS)을 사용해봤다. 삼성전자가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는 처음 내놓은 식기세척기이며, 불박이 모델로도 함께 출시됐다. 기자가 써본 프리스탠딩 모델은 8인용으로 무게는 42.5kg이고 폭, 깊이, 높이는 각각 450×699×845mm다.

◆설거지, 고무장갑 ‘안녕’

식기세척기는 보통의 설거지 과정을 크게 줄여줘 편리했다. 음식물을 제거한 다음 세척기 안에 그릇을 올리고 세제 투입구에 세제를 넣은 후 시작 버튼만 누르면 끝이다. 그러면 설정한 코스에 따라 세척이 이뤄진다. 세척이 끝난 후에는 자동으로 문이 열려 건조되기 때문에 다음 식사 때 물기 없는 그릇을 꺼내지만 하면 된다.



삼성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기 전 식기를 쌓아둔 모습.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그릇, 가위, 뚝배기, 낫쇠 등 제품을 넣을 경우 손상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세척력은 만족스러웠다. 표준, 섬세, 급속 등 코스를 골고루 이용해본 결과 식기가 모두 말끔하게 닦였다. 그릇이 더럽지 않은 경우 시간이 가장 짧게 소요되는 44분의 급속 코스를 이용했는데, 깨끗하게 세척됐다. 처음 97분이 소요되는 표준코스를 넣었을 때는 ‘세척 시간이 이렇게 길다니’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릇을 넣은 뒤 완료되는 것까지 지켜볼 필요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간편한 조작… 그릇은 가려 넣어야

삼성 식기세척기 프리스탠딩 모델의 상단에는 디스플레이와 버튼이 위치한다. 전원 버튼과 시작 버튼이 양쪽에 있다. 디스플레이는 코스별 세척 시간과 남은 시간 등을 표시해준다.

전기로 부담도 적었다. 표준코스로 1회 사용할 경우 84원 정도의 전기 요금이 발생하고,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한

다고 가정하면 월 2520원 정도의 전기료가 발생한다. 손 설거지할 때 물의 양도 삼성 식기세척기가 6분의 1 정도의 물만 사용해 경제적이다.

다만, 그릇 사용은 주의가 기울여야 한다. 성능을 시험해보기 위해 밥을 한 후 이를 동안 방치한 압력밥솥을 표준코스에 불림 기능을 더해 세척해봤다. 세척기를 사용한 결과 바닥 부분에 밥풀 흔적이 조금 남아있었지만 부드러운 수세미로 살짝 닦으니 금방 사라졌다.

◆설치가능여부 확인해야

식기세척기는 일반 가전처럼 들여놓을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식기세척기에 급수관과 배수관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삼성 식기세척기의 출고가는 69만원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